



# BARCELONA

Leading City • culture 21

Agenda 21 for culture의 선두도시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UCLG)

---

**영구적인 시민(현주민)과 임시적인  
시민(관광객) 을 위한 문화와  
관광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

**Greg Richards 와 Lénia Marques**

**개요서**

---

## UCLG 문화위원회(Committee on Culture of UCLG)

[info@genda21culture.net](mailto:info@genda21culture.net)

2018년 10월

---

전체보고서와 개요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genda21culture.net>.

전체보고서와 개요서는 하단의 작가의 이름과 보고서의 제목을 명시하는 조건하에 무료로 복제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ichards, G. and Marques, L., "Creating synergies between cultural policy and tourism for permanent and temporary citizens".**

저자는 본문에 포함된 사실과 그 안에 표현된 의견의 선택 및 제시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반드시 UCLG의 의견이 아니며 조직의 공개적인 의사결정도 아닙니다.

작가 : Greg Richards and Lénia Marques.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게 있습니다.

---

---

## GREG RICHARDS

---

Greg Richards는 네덜란드에 있는 Tilburg대학의 여가학(Leisure Studies), Breda 대학의 공간구성과 이벤트학(Placemaking and Events) 분야의 교수입니다. 수 많은 국가정부, 국가관광기구와 지방자치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관광과 레저 분야 연구와 교육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the SAGE Handbook of New Urban Studies(John Hannigan과 협업), Reinventing the Local in Tourism(Paolo Russo와 협업), Small Cities with Big Dreams: Creative Placemaking and Branding Strategies(Lian Duif와 협업)와 같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

## LÉNIA MARQUES

---

Lénia Marques는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에 있는 에라스무스 대학(ERASMUS)의 문화조직과 경영학(Cultural Organisation and Management) 분야의 조교수입니다. 포르투갈의 Aveiro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문화관광 분야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특히 아프리카와 브라질 등 수많은 국제적 문화개발 프로젝트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문화이벤트, 창의적 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의 연구에 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 개관

이 보고서는 바르셀로나의 선두도시 프로그램 (Leading Cities Programme) 실행의 기본틀로서 UCLG 문화위원회(UCLG Committee on Culture)와 바르셀로나 문화협회(the Institute of Culture of the City of Barcelona , ICUB)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문화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와 관광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불러일으킬 결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영구적인 시민과 임시적인 시민을 위한 문화와 관광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Creating synergies between cultural policy and tourism for permanent and temporary citizens), 보고서는 정책 자문관인 Greg Richards 와 Lénia Marques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 전의 보고서인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ourism in Barcelona: Current Context and Challenges (UCLG-ICUB, 2018) 에서 정의되었던 문제점들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이전의 타 분석에서 나타났던 이슈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 문화와 관광에 영구적인 시민과 임시적인 시민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는 5개 도시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성과 내용

이 보고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문화 정책과 관광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policies and tourism)이라는 제목하에, 작가는 문화정책과 관광에 미치는 문화정책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며,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두 번째 부분에 전개될 내용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는 도시에서의 문화와 관광 사이의 관계 발전이라는 최신의 내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보고서는 세계화와 같이 문화와 관광을 통합하는 주요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의 증가와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 생산 및 소비와 같은 통합의 주요 결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유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특히 도시내의 공공장소에서의)를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유되는 도시에서의 문화의 지속성에 관련된 이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첫번째 부분의 결론은 문화정책과 유동적인 인구 사이의 긍정적 관계에 있어 나타나는 난점들과 기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도시 사례 조사에서 나타난 문화와 관광(Culture and tourism in the city case studies)이라는 제목하에, 이 분야에 있어 도시의 실용적인 경험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바르셀로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비슷한 난점들을 지니고 있는 도시들로 암스테르담, 리스본, 로마, 코펜하겐과 몬트리올 입니다. 작가는 각각 도시들의 문맥적인 개요와 문화관광 분야의 개발을 소개하고, 이용가능한 정책자료·보고서·출판물·2차자료 그리고 각각 도시에서의 주요 행위자(문화와 관광분야 공공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원)와의 면담을 통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면담의 내용은 문화정책(문화적 소비경향, 문화시설, 문화분야 행정과 예산), 관광정책(수요와 공급의 최신 경향, 문맥, 지위, 행정조직), 문화와 관광의 연결 또는 결합(거버넌스 이슈), 도시에서 관광의 지위(문화의 소비와 생산자로서의 관광의 지위, 임시적인 거주민 등), 미래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분의 결론은 UCLG-ICUB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ourism in Barcelona: Current Context and Challenges 보고서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들을 참고하여 분석의 주요 포인트들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참고문헌과 면담자들의 리스트를 담은 부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부분(PART 1).**

**문화정책과 관광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 보고서의 첫 번째 파트의 분석은 문화정책과 관광은 '과도관광'에 대한 현대의 논의보다 더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문화와 관광은 문화개발, 정체성 형성, 사회통합 및 경제 성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얽혀있으며, 문화관광이 유례없이 주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창의 도시는 창의산업과 '창의관광'에 의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에서 문화와 관광 사이에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는 주로 세계화라는 요인에 의해 촉진되어 왔는데, 이는 증가하는 자원의 유동성·다문화 소비를 하는 인구의 증가·여행과 관광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또한, 세계화의 결과로, 도시들은 더욱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되었고, 국내외 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바꿔야 했다. 이것이 변화하는 도시 형태와 거버넌스 구조를 이끌어 내고 있다. 도시 성장에 따른 교외화의 강화로, 문화시설과 창조교실이 도심에 집중되고 있다. 도심과 주변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개발 전략은 더욱 유연한 문화자산·유형과 무형·고정성과 유동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공간을 창조·발견·지원하는 것은 문화정책의 주요한 안건이 되고 있다.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민영화 이슈의 고려·숙박·가치창출·유동인구 유인과 같은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와 관광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문화와 관광의 변화하는 관례와 관계가 있는데, 주로 시민과 관광객에 의한 일상속에서의 문화·스폰서십을 통한 마켓 창출·상업과 관광수입 등과 연관된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중재자와 미디어·공공펀드와 같은 주요한 기초자원의 증가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지역 문화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의 결과로, 런던과 파리와 같은 대도시가 -비록 도시에서의 관광 성장 지표는 가장 주요한 변수가 인구수라고 가정하지만-바르셀로나, 밀라노, 리온과 같은 소규모 도시와 경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들은 도시를 방문하는 절대적인 관광객 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내의 특정 장소에 인구수가 집중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도시에서 전반적으로 비즈니스가 증가하는 것 또한 고려해할 요인이다. 해외관광객 뿐만 아니라 국내관광객, 일일방문객, 현지 주민 또한 관광지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에서 증가하는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와 관광을 점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대부분의 활동들은 공유된 문화의 영향보다는 공간통제와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광과 문화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시민과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시민 모두에 의해 사용되는 시설, 유·무형적 요소들, 고정적 또는 유동적인 문화를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 그룹에 다채로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 담론은 긍정적인 접근의 시작이라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두 분야를 바라보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시각과 공공조직의 비유연성에서 공유도시의 새로운 방법과 성공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바르셀로나는 주민과 관광객이 선제적이고 이로운 관계를 공유하는 시각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시에 대한 권리' 라는 진행되고 있는 담론과 연관선상에 있다. 이는 시민의 권리와 소비라는 대립된 견해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시의 창조와 해석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citadin'(Lefebvre, 1995)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

도시를 공유하는 것은 도시시민과 그들을 재정의하는 권리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거주민과 방문객 사이의 전통적인 견해의 소멸을 암시한다. 도시의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호교류를 위한 장소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공유도시에 관한 이슈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공공장소에 관한 것이다. 사실, 도시에서의 문화와 관광의 관계는 공간에 관한 두 배의 문제점을 초래한다. 하나는 관광객이 도시의 공공장소에 압력을 더하는 것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객들이 주민이 살고 있는 새로운 사적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광의 교점은 '지역성'이 될 것이고, 관광소비가 일상적인 활동을 위주로 재조정되어, 일상의 상품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당분간, 비유동인구와 유동인구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은 예상보다 어려울 것이다.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다양한 관행을 집합적인 혜택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 난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 또는 단기간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만음의 공간'에 중점을 두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의 전통적인 공공장소에서의 관광활동에서 개인사유지나 중간지점으로의 관광활동 이전을 의미하고, 이민자들이 협력적인 관광매개자로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에서의 상대적으로 유동적·비유동적 인구 사이의 관계에 관한 토론은 문화의 지속성에 대해 주요한 질문을 던진다. Agenda 21 for Culture가 "도시와 지역의 장소들은 문화적 발명을 위한 특권을 지닌 곳으로서, 이 장소들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창조적인 다양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언급하듯이 말이다. 지금은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티켓판매와 관광객 수 등 주로 경제적인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인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영구적인 시민과 임시적인 시민 모두에 의해 개발되는 역동적인 도시문화라는 살아있는 유산과 같은 지역문화표현의 지속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 결론

문화와 관광 사이의 토론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담화에서 "임시시민"에 대한 선제적이고 긍정적인 토론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관광객이 "임시시민"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문화정책의 합법적인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과 관광객(유동인구) 사이에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다.

- 공공장소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 모색과 공공장소 수요 경쟁을 완화하는 것
- 문화시설의 밀집에서 파생되는 계속적인 문화복제에 대항하는 것, 글로벌 마켓과 경쟁하는 지역문화 생산
- 문화와 문화소비의 단절을 다루는 것
- 문화, 특히 증가하는 이벤트, 문화와 창조 클러스터, 다양한 잠재 사용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창조 플랫폼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시공간 장소의 마련
- 외부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과 문화생산, 소비와 교환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유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형태의 유동성을 변화시키는 것

문화, 창의성, 관광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개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

- 소유권 또는 경제적인 교환 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도시를 공유
- 증가하는 '임시 거주민'을 지역과 세계 문화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활용하고 문화와 창조산업의 다양성 증진
- 임시거주민을 활용한 문화의 생산과 소비
- 도시경연에 있어서 장벽과 '사일로식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를 장벽을 넘나드는 도구로서 활용



## 두번째부분(PART 2).

### 도시사례에 나타난 문화와 관광

---

보고서의 두번째 부분은 바르셀로나와 비슷한 특징 또는 문제점을 지닌 도시들의 예로 구성되었다. 이 도시들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지리적 문맥은 상이하다. 이러한 도시들과 바르셀로나를 비교하였으며, 정책 문서·각각도시의 주요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1·2차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주요내용은 문화와 관광정책의 주제, 문화와 관광사이의 연계, 도시에서의 관광의 지위 등이다.

## 도시사례에 나타난 문화와 관광

참고 연구도시는 :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새로운 기술을 통해 도시 지역의 문화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관광객의 흐름을 재조정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선제적 도시
2. **포르투갈 리스본** :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세계화에 대항해서 도시의 정체성을 보존할 필요성과 효과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도시
3. **이탈리아 로마** : 도시경영 문제로 가득한 로마에서 관광은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로마는 상당한 문화유산 보존, 현대 문화 발전 촉진, 문화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4.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 'localhoods'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있으며, 소음과 지대 설정법을 통해 관광객을 통제하는 반면 관광객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 유럽이외 지역 비교대상 도시로 선정함. 문화관광 홍보의 긴 역사를 자랑하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창조산업과 새 기술, 불어를 사용한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음

이 도시들은 규모, 문화자산의 높은 중요도, 관광분야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면에서 광범위하게 비교가 가능한데, 이들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경제' 숙박 제공업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 이 도시들을 상황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 모든 다섯 도시는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상당히 튼튼한 구조의 문화유산과 다수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주요 관광지이며, 이들은 또한 주민들에게 문화와 지식의 원천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문화와 창조 분야는 관광객 유입과 생산자와 소비자 등 유동인구의 원인이 된다. 문화는 또한 위 도시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도시의 구조적 요소의 차이로 인해 문화의 접근성에는 위 도시들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들마다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개방성의 수준이 다르다. 또한 위 도시들의 도심은 관광객의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소음으로 인한 거주민의 불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최근 관광 성장에 관한 반응 분야에서는, 비록 관광이 경제위기때 사업체와 문화 기관들에게 수입의 원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럽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도심혼잡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거주민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에 반대하는 민주적인 시위활동이 특히 관광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정치적 압박과 2015년 Ada Colau 시장이 선출되면서 바르셀로나는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관광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는 관광숙박업 증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시민사회로부터의 반관광 압박에 대응하고자, "균형속의 도시(The City in Balance)"라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는데, 이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현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고,

새로운 숙박업·관광객을 겨냥한 상점과 'beer-bikes'와 같은 활동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되었다.

로마에서는, 야간 노상음주나 공공분수에서 물장구 치는 것 등에 더욱 엄격한 규칙과 벌금이 부과되었고, 마차는 역사적인 중심부에서는 금지되었다. 리스본에서는, 반관광 시위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동안 관광이 포르투갈의 경제부양에 이바지했다는 시각때문이다. 그러나 "리스본은 대규모 관광(mass tourism)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플랫폼은 도시에서의 관광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들 도시간에는 광범위한 공통점이 있지만 주요한 차이점도 있다. 현저한 남-북의 차이가 있는데, 암스테르담이나 코펜하겐과 같은 도시는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문화서비스 공공장소의 제공, 높은 수준의 시민신뢰가 나타난다. 리스본이나 로마와 같은 남쪽 도시에서는 공공기관의 문제해결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일반적으로 낮으며,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이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남쪽 도시들에서 보다는 더욱 집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은 북아메리카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유럽의 도시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몬트리올은 관광의 측면에서는 코펜하겐과 비슷한 상황이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성장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므로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 사례도시 개요

문화정책이 도시에서 관광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명백히 해결할 수 있을지 조사하기 위해, 이 부분에서는 각 도시들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 분석 또한 포함된다. 면담의 내용은 '일반적인 문맥과 배경', '문화와 관광의 상관관계', '정책', '거버넌스', '각종 조치와 프로젝트', '미래의 도시 비전과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도시들과 관련해서, 하단의 내용은 주요 분석결과이다.

암스테르담은 오랜기간동안 도심 혼잡의 문제를 경험해 왔고 현재는 "균형속의 도시(The City in Balance)"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 사이의 관계는 아주 복잡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도시 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의 미래지향 전략은 전체로서 도시 전반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유동성과 관련해 나타나는 이슈들을 타 유럽의 도시들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코펜하겐은 스스로를 주머니 크기의 수도로서 개방적이고 관대한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들은 코펜하겐의 'localhoods'를 흥미로운 방문장소로 변모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과제는 'localhoods'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리스본은 성공적인 국제 마케팅 전략의 결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록 관광이 경제위기 동안 경제 부양에 주요한 동력이 되었고, 증가하는 투자가 가치가 하락하는 도시를 재건했지만, 이 부정적인 외부성은 사례 도시들 중에서 리스본 역사도심이 거주민 대비 관광객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었다. 그리고 문화공급은 관광객과 도심, 거주민과 주변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몬트리올은 다른 사례도시들에 비해서는 관광객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유럽에서처럼, 관광이 성장하고 있고 도시에서의 문화 생산과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관광의 부정적 외부성을 다루는 문제라기 보다는, 대도시의 다양한 지역들을 통합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로마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타고난 문화와 유산을 지닌 관광선두도시라는 점이다. 역사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자원들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도심의 관광객 집중은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도심에 접근하는데 있어 방해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동시대의 문화와 유동문화를 강조함으로써 도시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절된 대도심 지역에 이러한 문화정책들을 널리 집행하는 것은 미래의 거버넌스적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 바르셀로나 경험의 고찰

이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해, UCLG와 ICUB과의 발전된 협업을 위해 2018년 10월 15일 바르셀로나 문화와 관광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이 UCLG와 ICUB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면담에는 도시의 선도적 문화기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일반적인 지지의 입장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 공간은 문화와 관광 사이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도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통합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영토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도심과 주변지역 그리고 새도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으로서의 도시(city as platform)로 변모하는데 있어 문화의 세계화와 상업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자들의 참여와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더욱 횡단적이고 수평적인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 거버넌스는 현재 정책의 분야를 분리하는 '사일로'에서 벗어나 유동성, 접근, 평등이라는 이슈로 진화해야 한다.
- 문화소비형태에 더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데 이는 단순한 마케팅에서 정보조직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관광객을 위한 문화를 개발하는 것보다 '문화를 위한 관광'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 UCLG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도시간의 네트워크는 문화와 관광의 관계를 다루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10월 15일, 첫 Thought of Barcelona 격년제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산 안토니 시장에서(the Mercat de Sant Antoni) 공개 발표가 있었다. 컨설턴트인 Greg Richards와 리스본 자치단체 문화분야 부시장인 Catarina Vaz Vinto가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으며, 이는 UCLG 문화위원회의 코디네이터인 Jordi Pascual이 진행했다.

## 결론

바르셀로나의 상황과 더욱 잘 비교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UCLG-ICUB의 이전 보고서인 바르셀로나의 문화와 관광의 관계 : 현 문맥과 도전과제(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Tourism in Barcelona: Current Context and Challenges)에 나타난 주요 이슈들을 포함했다.

### 1. 문화정책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접근

'사일로'식 도시정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과 관광사이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며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을 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정책에 있어 횡단적인 요소로서 문화의 역할은 다른 도시 문제들 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인한 외부성을 제거하는 합법적인 도구로서 더욱 확고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 담론의 주요 목적은 문화와 관광이 도시 담론에서 어떻게 자리잡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 소비자의 경제활동이라고 여겨졌던 전통적인 개념의 관광은 질적인 면에서 더욱 복잡한 개념을 수반한다. 관광객은 더 이상 도시 문화의 피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일·교육과 자아개발을 위해 또는 레저를 위해 여행을 하는 중요한 참가자이다. 관광객에 대한 오래된 개념보다 '임시적인 시민' 또는 'citadins'라는 개념이 더욱더 적합할 것이다. 게다가, 모든 거주민을 도시 공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식을 바꾸는 주요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식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문화정책과 관광의 관계는 또한 지속가능성 특히 문화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4번째 기둥(Agenda 21 for Culture의 내용)'으로서 문화는 관광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미래 발전에 대한 잠재성을 제공한다.

## 2. 문화적 관점에서의 도시모델 고찰

도심과 도시내부 공간에 주민과 관광객의 증가를 보이는 현대의 도시모델은 문화와 관광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한다. 도시사례연구에서 이는 변화하고 있다. 첫째, 많은 도시들은 도시의 대도시권을 고려하고 있는데, 도시자체 뿐만 아니라 확장적으로 도시지역과 새로운 구심점을 염두하고 있다. 이는 접근가능성과 자원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도전과제이며, 문화정책의 도심-주변지역 차원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도시 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문화정책 모델은 문화적 접근성과 분권화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이 도시 문화 시스템의 재활성화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주변지역에 새로운 문화허브를 개발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기회이며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문화접근의 형태가 될 것이다.

리스본에서 연구된 것과 같이, 도시모델의 재고려의 관점에서 밤의 문화활동을 개발하는 것 또한 떠오르는 주요 이슈이다. 암스테르담은 부정적인 외부성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성을 다루기 위한 문화와 관광 시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도시의 축제들은 도시경영과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 3. 문화생활에 적극참여하기 위한 만남의 공간 확립

도시에서 사용자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문화공간을 보존하고 창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다.

- 바르셀로나가 지난 몇년간 그러하였듯이 기관이나 이벤트를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리스본이나 암스테르담도 문화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한 분권화 방법을 선택했다.
- 조직적이고 도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존하는 문화공간을 세계화와 부동산 투기로부터 보호하고, 지역 문화생활·정체성·사회적 응집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창의적 관광' 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문화와 창의성과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이를 개발하고 있으며, 리스본과 몬트리올에서도 시도중이다. 그러나 이것은 틈새시장 공략이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mass tourism)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 4. 중재와 홍보를 통한 관광

과거에는, 관광객이 지속가능하도록 행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전략은 커뮤니케이션이 었다. 현재는, 타겟그룹이 설정될 수 있도록 확장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의 가치를 홍보하는 메시지 전략이 코펜하겐과 같은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규제와 공간디자인·관리와 같은 더욱 미묘한 전략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중재를 통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연계해 주는 지역문화중재자들은 지역문화대사 또는 교육자로서 역할 할 수 있다.

## 5. 관광으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에 재투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문화자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객의 방문으로 발생한 수입을 도시의 문화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것은 서민적 창의 프로그램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문화에 재투자한 흥미로운 사례들을 리스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 더욱더 유연하고 상업적인 방법으로 문화공간들을 운영하고 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The Trevi Fountain)와 바르셀로나의 구엘공원(the Park Güell)은 이러한 수익을 문화에 배정하는 사례이다. UNWTO (2018)의 자료는 세계관광의 40%가 문화관광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관광으로 인한 수입의 일부가 문화시스템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기본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와 같은 몇몇 도시에서는 문화가 심지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관광세금이 또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주요한 논쟁거리이다. 게다가 이 세금들은 주로 관광으로 야기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 보통이며, 문화로 환원되지는 않고 있다.

## 6. 문화와 관광의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공간 창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복잡한 관계는 대화를 위한 특정공간 창조와 기존 공간 강화의 이유가 된다. 모든 도시들이 고려하는 현재 개발들은 대도시권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포함하는데, 이는 새로운 공간들을 도시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새로운 사용자 그룹을 도시인근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덜 사용된 공간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도시들은 다양한 유동인구 그룹을 위해 시티카드와 같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며, 시민들과 유동그룹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과 관련된 그들의 필요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디어를 문화와 관광정책을 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도시의 새로운 모델과 도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도시의 중심지와 주변지역과 더 넓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모든 사례도시에서 일정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7. 나아갈 방향

문화와 관광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의 도시속 삶과 지방자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와 시민들의 기본 도전과제는 증가하는 세계화와 유동성이 제공하는 기회와 지역적 문맥에서 제공 받아야 하는 주요한 지원 사이의 갈등이다. 우선순위는 다양성을 유지하고, 과거유산과 동시대 문화의 조화를

이루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은 지역문화를 부양하는 주요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와 관광에 관한 통합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문화 간, 각각의 문화간, 관광과 다른 영역의 문화·사회·경제 활동간, 다른수준의 지리적 규모의 통합 등을 걸쳐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대부분의 도시는 정책적 가이드로서, 도시에서의 문화적 표현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도시의 모든사용자에 의한 문화적 개입과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주민의 욕구와 관광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

# 연락처

이 보고서에 관한 추가정보:

**바르셀로나 문화 연구원 Institute of Culture of the City of Barcelona (ICUB)**

연락처: Jaume Muñoz and Esteve Caramés

이메일: [jmunozj@bcn.cat](mailto:jmunozj@bcn.cat)

[ecarames@bcn.cat](mailto:ecarames@bcn.cat)

웹사이트: <http://lameva.barcelona.cat/barcelonacultura/en/icub>

트위터: [@abcncultura](https://twitter.com/abcncultura)

**UCLG 문화위원회 Committee on culture o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이메일: [info@agenda21culture.net](mailto:info@agenda21culture.net)

웹사이트: [www.agenda21culture.net](http://www.agenda21culture.net)

트위터: [@agenda21culture](https://twitter.com/@agenda21culture)

